



붓으로 그림을 그려  
민화를 홍보하는 것이  
내 일입니다

# TOGETHER<sup>+</sup>

## 함께

Vol.28 2018 WINTER

### COVER STORY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가운데서도 여성 창업자를 만나 일하는 여성들의 한 장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붓으로 그림을 그려 전시를 통해 민화 홍보를 하고 있는 기업 뜻뚝을 만나보았습니다. 한국의 전통그림은 촌스럽다는 편견을 없애고 한국적인 디자인이 아름답다는 것을 재치 있게 알리고 있는 뜻뚝은 민화전시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뜻뚝의 김명순 대표님이 이번호 표지의 주인공입니다.

## “나눔은 기쁨으로 가득찬 세상을 꿈꿉니다”

글 | 기획협력팀 박가현 선임매니저



늘 고마운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부쩍 추워졌지만 변함없이 함께 일하는 재단을 응원해주시는 후원자님이 계셔서 마음의 온도만큼은 따뜻한 겨울입니다. 저는 재단에서 후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가현 매니저입니다.

제가 그동안 후원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나눔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기부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나눔을 통해 느끼는 행복은 우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후원자분들이 낸 후원금 이상의 가치가 있고 후원금으로 진행한 공익사업과는 별개로 사회에 이바지합니다.

저도 기관에 후원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후원자는 물질을 지원하는 제공자이면서 나눔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시켜나갈 수 있는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단 직원으로서 후원자님께 나눔의 기쁨을 즐겁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후원자님께서도 재단의 활동에 더 큰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지속적으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Opening

재단은 계층별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 시니어, 취약계층 등 계층별 지원모델을 설계하고 민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호에서는 '일하는 여성'에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일자리, 여성으로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여성으로 일하는 방식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조망하고자 합니다.

\_편집자 주

## CONTENTS

### 일자리 기획칼럼

- 04) **특집 기획**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

### 함께하는 일의 의미

- 06) **현장 속으로 1**  
[품:다, 엄마의 일자리가 아이를 품다]
- 09) **현장 속으로 2**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을 통한 더 나은 사회 만들기

### 함께하는 일의 흥미

- 12) **일하는 物**  
아름다운 세상을 그려나가는  
브러시잡스(brush jobs)

### 내일에서 on 편지

- 14) **인터뷰**  
우리는 재단 나눔 어벤저스입니다~

### 재단소식

- 18) **재단동향 및 이슈**



미션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비전 2025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가장 신뢰받는 기관

Vol.28 2018 WINTER

발행인 송월주 | 발행일 2018년 11월 30일 | 발행처 (재)함께일하는재단  
주소 (0399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36 | 대표전화 02-338-0019  
홈페이지 <http://www.hamkke.org>  
기획·편집 (재)함께일하는재단 | 디자인 오즈커뮤니케이션  
후원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513-196182-13-105 / 국민은행 032901-04-181772  
농협 301-0011-3418-11 / 신한은행 140-008-341200

● 'TOGETHER+ 함께'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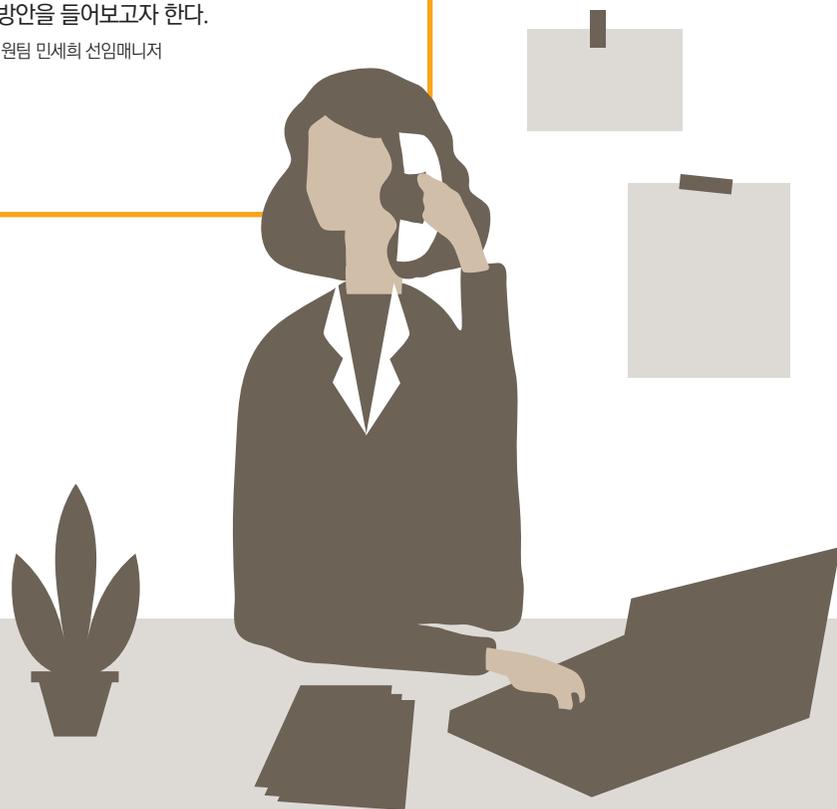
한국에서 여성의 일자리 현주소는 어떨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은 과거에 비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근무환경 또한 개선되고 있을까?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편안한 근무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 여성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내 직원 가운데 7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된 패션브랜드 자라를 운영하고 있는 인디텍스코리아의 사내문화를 통해 들여다본다.

인디텍스코리아의 사회공헌 사업은 2008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현재 스페인, 이탈리아, 멕시코, 브라질, 미국 등 전 세계 11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평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내 문화를 바탕으로 여성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인디텍스코리아 양혜미 상무에게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를 위한 장기적 방안을 들어보고자 한다.

글 | 인디텍스코리아 양혜미 상무 편집 | 운영지원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인디텍스코리아 양혜미 상무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은 과거에 비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여성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또한 여성의 평균 월급 수준은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OECD 15년째 1위, 여성 고용률 35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과거에 비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늘어나면서 각종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 정부와 기업에서 함께 마련해야 할 여성을 위한 제도들

OECD는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중하위권이라는 발표와 함께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재고를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 일과 가정의 양립, 보육 서비스 확대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부분 외에도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도록 지금보다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 특히, 기업에서는 적극적인 시각의 변화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곧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부분을 인식하는 한편, 성평등 채용 및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보육, 육아, 교육시설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이 제도적으로 성숙해져야만 여성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다.

### 평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내 문화

이런 점에서 볼 때, 인디텍스코리아는 직원들에게 공정하고 포용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직무의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보다도 직원들을 가장 큰 자산으로 생각한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171,839명의 직원들은 약 100개의 국적을 가지며 50개 이상의 다른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다문화주의와 다양성 존중은 회사의 핵심이다. 회사의 글로벌 다양성 포용정책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녀평등 인식개선과 삶의 균형 장려를 위한 계획으로 확장된다.

여성의 임신 친화적인 정책을 지지하고 보육의 의무가 있는 직원들에게 결근을 권유한다. 이러한 원칙은 직원 채용 및 선발, 직장 내 복리후생 등 모든 고용조건에 걸쳐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자라

리테일코리아의 근로자 가운데 70%가 여성들이다. 사내에 여성 직원들이 많다보니, 여성 직원들의 결혼, 출산, 육아휴직, 복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보장을 해준다. 육아휴직 후 여성 직원의 복귀율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남성 직원들의 육아휴직 또한 인정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늘리기 위한 사업 진행

인디텍스코리아는 평등과 다양성이라는 신념을 사내 직원에게 적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 취약계층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함께일하는재단과 진행한 Salta Programme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취약계층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장에 투입하기 전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무교육을 통해 적응기간을 갖게 하고 실제 현장에서 자신의 분야에 맞는 사업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취지의 사회공헌 사업은 2008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현재 스페인, 이탈리아, 멕시코, 브라질, 미국 등 전 세계 11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도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함께일하는재단은 여성 일자리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여성에게 우선적인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사업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품:다], 엄마의 일자리가 아이를 품다

부모의 시선으로 장애아동들이 직면하는 어려운 점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온종일 필요한 아이들이 엄마의 아이디어로 인해 좀 더 편안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통해 장애아동의 불편한 부분을 어루만지는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6기로 활동한 예비사회적기업 마마품을 소개합니다.

취재·편집 | 운영지원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인터뷰 | 마마품 Umhaeng 대표 일러스트 | 이강인

마아품  
mamapum



### 장애아동 엄마가 창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

“뇌병변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엄마의 손길이 항상 필요해요. 창업을 하기 전에는 아이를 돌보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랐어요. 하지만 부모로서 아이의 어려운 면을 들여다봐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창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도 아이들에게 항상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느낌을 주는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Umhaeng 대표는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여성이 일자리를 갖기 힘든 상황과 마마품을 창업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마품은 뇌병변 자녀를 둔 부모들로 직원이 구성되어 있어 장애아동이 실생활에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아이디어와 자원으로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Umhaeng 대표는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 개발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뇌병변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뻣뻣하게 굳은 몸 때문에 옷을 입기도 어렵고, 신발을 신기도 힘들습니다. 이런 부분을 겉에서 지켜본 엄마는 자신의 아이에게 맞는 새로운 형태의 옷과 신발을 제작해 입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는 척추측만증 수술을 해서 지속적으로 자세교정을 해줘야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자세유지보조기구와 특수휠체어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성장이 아이에 맞는 기구로 계속 교체해 주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쌌죠.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한 휠체어테이블을 만들게 됐어요.” 아이를 위한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탄생하고 창업으로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2015 생활발명코리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모습

### 부모의 활동과 참여로 개선된 변화들

특수학교 학부모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 6개 지체특수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 간에 모임을 조성하여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를 만들게 됐고 장애아동들이 적용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시켰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부모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오래 걸리긴 했지만 부모들의 힘으로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며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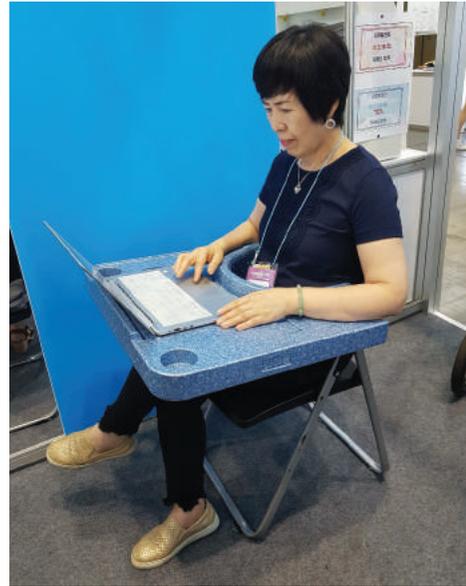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진행한 대회에서 휠체어테이블 아이디어를 제출했어요. 그해 1,500개 정도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는데 50등까지만 주어지는 2차 프리젠테이션 기회를 얻었어요. 시민들 앞에서 제품에 대해 공개적인 평가를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상까지 받게 됐어요”라며 Umhaeng 대표는 그때의 벅찬 감동을 전했습니다.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창업팀 6기로 참여하게 됐고, 멘토분들이 네트워크 연계를 잘 해주셔서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라며 그는 창업을 하면서 지속적인 도전을 통한 돌파구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어르신 휠체어테이블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킨텍스에서 진행하는 전시회에서 제품을 홍보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부모 스스로 만들어가는 여성 일자리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부모 스스로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서로 도와가며 아이디어를 보탠다면 사회에서 엄마인 여성도 충분히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엄해경 대표는 기업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사회에 보탬이 되면서 직원들에게 충분한 급여 및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회사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주변 엄마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며 여성 일자리 창출에 있어 부모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아용 기저귀도 1~7단계까지 있는데 장애아동을 위한 청소년 기저귀는 1단계 밖에 없어 장애아동을 위한 용품의 단계를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목표이고 장애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은 힘들지만 더 노력해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제품군을 개발하고 싶어요. 저희 제품이 브랜드로 나왔을 때는 굉장한 성취감이 들어요”라며 여성으로 일을 하면서 느끼는 동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마마폼이 장애아동들에게 엄마의 품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휠체어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가능한 마마폼의 기능성 다용도 테이블



마마폼의 기능성 다용도 테이블을 들고있는 엄해경 대표(좌)



##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을 통한 더 나은 사회 만들기

재단은 해외 빈곤아동·가정지원 사업으로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단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6기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지역민들이 시내에 나가 일하고 가정을 꾸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PSPK(곰박지역 사회서비스 및 지역사회 개발연맹)는 교육 프로그램 및 보호소 운영으로 지역 내 활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이 만들어가는 변화를 함께 살펴볼까요?

글·편집 | 운영지원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시내에 나가 일하기에 많은 교통비와 시간이 들어 가정을 꾸리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 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PSPK는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어 봉재사업으로 주민 소득증대 및 생활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등으로 고갈 데 없는 여성들을 위한 임시거처 보호소를 운영해 지역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Malaysia





편모가정 여성을 고용해 지역민의 삶의 질과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돕는

# 말레이시아 'PSPK'



## 대표사업 1

### 봉재교육 사업



#### 주민 소득증대 및 생활향상에 기여합니다

PSPK는 편모가정 여성들을 고용하여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의류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고용을 넘어 여성들이 스스로 조달 및 소비 전체를 관리하고 비즈니스의 주인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봉재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편모가정이나 취약계층 여성이 아이를 돌보며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生生 인터뷰

#### "봉재교육을 받은 후, 가게를 내고 독립도 하게 됐어요!"

PSPK의 활동을 알기 시작한지는 한 7년 정도 됐어요. 2014년에 봉재교육을 시작한다고 해서 6개월 간 교육을 받고 PSPK 봉재센터에서 일을 하며 돈을 모아 개인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됐어요. 봉재센터에서 일했을 당시에는 월 500RM(한화 12만 5천 원) 정도를 벌었는데, 현재는 2000RM(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낼 수 있게 됐어요. PSPK를 통해 무료로 기술을 배우고 개인 가게를 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와 같이 기술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해요. \_Malardilly

## 대표사업 2

### 보호소 운영



#### 지역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운영됩니다

PSPK는 가정폭력 등으로 오갈 데 없는 여성,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시거처를 위한 보호소를 운영하며 지역민을 돌보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여성 커뮤니티를 조직하여 가정폭력 방지 및 기업가 정신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에 거주하는 로힝아족과 같은 난민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生生 인터뷰

#### "오갈 데 없이 방황하던 저를 받아주었어요"

현재 이곳 보호소에는 어린 여성, 여성 동반 자녀가 살고 있고 편모가정일 경우 하루 8RM(2천 원) 정도의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어요. 보호소에 머무는 여성들은 주로 가정폭력을 겪은 사람이 많고 이 외에도 오갈 데가 없는 노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요. 저도 길에 버려져 있을때 지인들이 이곳에 연락해 주어 구조될 수 있었어요. 거처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생활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부에서 소일거리와 담소를 나누며 지내고 있어요. \_Trettha

# 아름다운 세상을 그려나가는 브러시 잡스 brush jobs

일과 관련된 도구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재미있는 직업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붓, 청소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한 빗자루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직업군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기업육성사업 8기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로 각자의 미션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취재·편집 | 윤영지원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붓은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고 제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울이에요”

뜨뜻\_김명순 대표  
(민화전시, 초상화 작업을 통한 민화홍보)

저에게 붓은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친구이고 제 마음을 대신 표현해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의 전통그림은 촌스럽다는 편견을 해소하고 한국적인 디자인이 아름답다는 것을 재치 있게 알리고 싶어 민화를 그려 홍보하고 있어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붓을 활용해 그림을 그리는 일이 많은데 붓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웃음을 줄 수 있어 행복해요.



“브러시는 사람과 스스럼없이 만나고 수다 떨 수 있게 해주는 놀이감이에요”

만리아트메이커스\_안정숙 대표  
(문화예술을 매개로 생애주기별 공동체 놀이터 만들기)

브러시는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만나고 수다떨 수 있게 해주는 놀이감이에요. 저희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생애주기별 공동체 놀이터 만들기의 첫 걸음으로 주민들과 그림그리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주민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서로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할 수 있어 기뻐요.



“빗자루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예요”

상4랑클린\_최인수 대표  
(청소운영을 통한 빌라 미화관리)

빗자루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예요. 상도4동은 20년 이상 오래 거주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그 자체로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에요. 저희는 이 지역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후화된 건물들을 관리하고 지역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빗자루질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공유하면서 서운함과 아쉬움을 털어내고 있어요.

'내일에서 on 편지' 직원 편

# 우리는 재단 나눔 어벤져스입니다~

후원자님들이 생각하는 나눔이란 어떤 것인가요? 평범한 일상인가요, 아직도 약간은 부담스럽다고 느껴지시나요? 후원자님은 모르셨겠지만 재단 직원들도 기관의 후원자로서 나눔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릴레이 기부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평소 직원들이 생각하는 나눔에 대한 의미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내일에서 on 편지(이하 내\_편)에 동참한 재단 직원 나눔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내\_편은 청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릴레이 기부 캠페인입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모으는 릴레이 기부 캠페인, 내일에서 on 편지는 계속됩니다. 쭉~~욱~

글·취재 | 운영지원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인터뷰 | 박지영, 이원태, 김유동, 박병혁, 윤석철, 김연수



김연수  
사회적경제팀 책임매니저

### 나눔을 통해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사업 중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을 담당해 창업기업들의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내\_편을 기획한 기획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_편은 저한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릴레이 기부 캠페인 형식으로 기획한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도 제가 캠페인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직원들에게도 참여를 독려했어요. 나눔은 서로 간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취지의 캠페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청년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줬으면 좋겠어요.

###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해 주세요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면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해요. 내\_편은 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취지를 가진 캠페인이에요. 저에게 나눔이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가진 시간과 마음을 상대방에게 나누는 것은 이 세상을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믿고 있어요. 좋은 취지의 사업은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 함께 밴드활동을 했던 친구들에게 권유했고 모금된 금액이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청년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꿈을 좇아 묵묵히 해나가다 보면 어제보다 조금 성장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와 가까워질 테니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박지영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김유동  
일자리증진팀 선임매니저

### 나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한 분들도 일상으로 복귀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환우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요. 직원분의 권유로 내\_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친구들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좋았어요. 꿈을 가진 청년들 누구나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는 생각에서 저부터 나눔을 시작했어요. 평소 나눔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꿈을 꾸는 청년들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길 바라요.



윤석철  
사회적경제팀 선임매니저

### 작은 나눔으로 더 큰 나눔문화를 만들어 주세요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공간 지원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요. 일반적 인 모금 캠페인은 각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데 내 편은 기존 참여방식과 달리 사 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기획의도가 좋아 참여 하게 됐어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작은 나눔을 실천해나간 다 면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는 나눔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금된 금액은 청년들의 희망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지하는 버팀목으로 사용됐 으면 좋겠고 청년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 나눔을 통해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요

물건을 사면 10%의 부과세가 세금으로 붙는데 기부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회에서 일정 정도 수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일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 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요. 나눔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의 가 장 작은 단위인 가족에서부터 지역 공동체 간 자신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것처 럼 일상 속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 에 작은 금액이라도 기관이 목표로 하는 곳에 모금액이 사용되면 좋겠어요. 청년 들이 취업난에 시달리고 좋은 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기성세대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동참 했으면 좋겠어요.



박병혁  
사회적경제팀 팀장

### 본인의 형편에서 조금씩 나눔을 실천해요

일자리증진팀에서 계층별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미래 세대를 위 해 조금이나마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 편에 참여하게 됐어요. 평소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막상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가진 형편에서 조금이나마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모금된 금액으로 일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금이라도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상 황이 어려울수록 용기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원태  
일자리증진팀 팀장

## 내일에서 on 편지

## O X 퀴즈!

**Q.**  
내일에서 on 편지는 실제로 아동들에게 편지를 보내주는 사업이다.

**A.**  
내일에서 on 편지는 취약계층 아동 및 청년들의 꿈을 밝혀주기 위해 기획된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의 밝은 내일 (tomorrow)과 청년들의 다양한 내 일(work)을 뜻하 며, 언제든 켄 수 있는(on) 편지를 뜻합니다. 직접 편지를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키트를 통해 사 람 과의 관계 속에서 나눔을 이야기 하고 인간관계를 통 한 연결의 힘이라는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Q.**  
내일에서 on 편지는 나눔에 대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A.**  
내일에서 on 편지는 나눔에 대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캠페인 입니다. 평소 나눔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려면 작은 부분에서부터 지인과 함께 실천 해 보세요. 내일에서 on 편지에 참여하면서 나눔을 통 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Q.**  
캠페인이 마무리되면 내일에서 on 편지도 끝난다.

**A.**  
내일에서 on 편지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통해 지속적 으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 기 위해 사용되며, 재단의 사업 내용은 연간보고서를 통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보고됩니다.



□ □ □ □ □ □ □ □ □ □ □ □ □ □ □ □

### 내일에서 on 편지에 동참하는 방법

내일에서 on 편지에 참여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 주세요!

### 나눔의 또 다른 방법!

후원자님이 원하는 방식(정기, 일시후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층(아동, 청소년, 여성, 시니어 등)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전력그룹사 이천지역 농수축산물 박람회'**

재단은 각 지역 농수축산물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150개 기관을 대상으로 농수축산물 박람회를 운영했습니다. 함께하는재단이 주관하고 한전 등 11개 전력그룹사가 주최한 행사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민과 동반성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가치 공유 차원에서 마련된 행사입니다.



**청년 주거복지 향상 '허그 세어하우스 3호점'**

재단은 신촌에 공유주택 허그(HUG) 세어하우스 3호점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공간을 지원하고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호점은 서울 답십리, 2호점은 경기 안양에 위치해 있으며, 3호점은 도시재생 분야 관련 취·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한 공유형 주택으로 운영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같이 가요. 가치 여행'**

재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2018 가치(Value) 여행'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 및 취업예정자의 해외연수 지원과 국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총 40명을 선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네팔에 다녀와 예비 네팔리를 위한 안내책자 제작, 가치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실현했습니다.



**사회변화를 이끌어갈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재단은 사회변화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대상으로 2019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전선발을 진행해 10개 내외의 팀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팀에는 창업지원비, 전문가 멘토링, 창업공간 대여, 자원연계 네트워킹 등이 이루어집니다. 2019년 정시모집을 통해 더 많은 팀을 선발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환우들의 꿈을 세상과 이어주는 '이음 프로젝트'**

함께하는재단과 한국노바티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환우 취업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투병생활을 극복하고 취업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환우를 대상으로 3개월간 정서치유를 위한 심리상담과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으며, 환우들이 사회에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생각 '2018 소설벤처 경연대회'**

청소년, 대학생, 일반창업, 글로벌 성장 등 4개 부문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모집을 위한 '2018 소설벤처 경연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10년차로 진행된 행사에서 총 41개팀이 수상을 거머쥐었고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을 위한 후속지원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안내

올 한 해에도 함께해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함께일하는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범위

개인 : 소득금액의 30%  
법인 : 소득금액의 10%

세액 공제율

15% (2천만 원 초과분 30%)

발급방법 1

함께일하는재단 홈페이지  
www.hamkke.org

후원페이지 → 정기후원 → 로그인 →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 납부년도 선택 → 다운로드

\* PC에서 출력 가능

발급방법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hometax.go.kr

12월 31일까지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된 분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1월 중순 이후 조회 가능

기부금영수증을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받길 원하신다면 후원상담(02-330-0711, 0744)으로 연락주세요.



후원자님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변경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에서 회원정보를 변경하시거나 후원상담(02-330-0711, 0744)으로 연락주세요.



기부금영수증은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발급되며 이중발급 방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등록된 후원자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부금영수증 관련문의 후원상담 02-330-0711, 0744

연말, 연초에는 전화량이 많아 전화 응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SPECIAL THANKS TO...



올해도 재단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후원자님을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들 덕분에 재단에서 사회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안정화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지속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18년 재단과 함께 해주시는 개인 후원자님들 가운데 올해 1회 이상 납부하신 총 2,503명 회원분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후원자분들 가운데 동명이인의 성함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미자	고민우	권수정	김나현	김민숙	김수현	김용주	김정숙	김철중	나성일	문종철	박봉애	박은규	박태영	변창길	성승희	신난영	안방지	염미화	원종철	육현호	이경목	이미영	이숙경	이윤경	이진성	임성희	장정은	전해빈	정영숙	조명호	차미리	최수성	편도희	함원준	황근용
강병진	고봉	권수진	김남기	김민영	김수희	김용호	김정아	김철호	나영숙	문주남	박부서	박은숙	박하연	변철환	성원주	신동욱	안부성	염영숙	원재민	윤경	이경미	이미자	이숙연	이윤자	이진숙	임시경	장정자	전현숙	정영자	조문철	차상화	최수정	표성열	함정수	황금열
강경녀	고상근	권순금	김남주	김민지	김숙자	김유남	김정애	김철호	나윤주	문지후	박산옥	박은영	박혜숙	변대영	성윤옥	신동춘	안상도	염윤호	원현철	윤금숙	이경민	이미희	이숙종	이윤주	이진옥	임애자	장지희	전형하	정옥자	조민경	차순호	최수하	표정미	함춘희	황대식
강경희	고승주	권순선	김남진	김민재	김순복	김유연	김정은	김철호	나은아	문혜현	박산민	박은희	박현식	부선필	성은미	신동희	안소영	염정환	위성진	윤금자	이경선	이민기	이숙현	이은경	이찬자	임영결	장창	전해림	정완숙	조민석	차영민	최숙자	하동웅	허경희	황명자
강광철	고승현	권양순	김남훈	김민철	김순예	김운영	김정은	김태근	나정화	문호주	박산연	박인명	박현주	빈철현	성재수	신명윤	안소유	염희현	유경임	윤남경	이경순	이민수	이숙희	이은국	이창배	임영희	장태성	전효정	정용모	조민오	차윤휘	최순영	하미경	허권	황미양
강기순	고영기	권영란	김남희	김범창	김순옥	김원석	김정이	김태봉	나지영	민병돈	박상우	박인숙	박현진	사덕선	성진	신문자	안숙진	오기연	유경진	윤덕희	이경우	이민숙	이순녀	이은나	이창우	임우현	장해민	전효진	정용주	조상복	차주현	최소옥	하영심	허금숙	황병식
강남수	고유자	권영복	김노아	김병윤	김순이	김철선	김정자	김태석	나호선	민병숙	박상옥	박일주	박현희	사은	성혜수	신문재	안순임	오경애	유관상	윤영광	이경은	이민영	이순미	이은미	이창영	임유경	장해원	전근구	정용상	조선미	차희희	최소희	하정호	허금자	황보희
강대석	고은희	권영서	김나엘	김병철	김순자	김월화	김정환	김태선	나호선	민병호	박상원	박장근	박혜련	사영진	소병초	신미숙	안신남	오경옥	유근미	윤영숙	이경의	이민종	이순배	이은숙	이춘배	임유선	장향란	정근희	정윤진	조성민	차희아	최승민	하지성	허금자	황복기
강동주	고재중	권영혜	김다휘	김병철	김순재	김유종	김정호	김태수	남구현	민부기	박성득	박재민	박혜선	서기현	소정윤	신미화	안순혜	오경태	유근숙	윤영순	이경자	이민호	이순주	이은실	이춘배	임은은	장현주	정경성	정은희	조성순	채미경	최승하	하지영	허금자	황규규
강동기	고정순	권오열	김대근	김병화	김순희	김유미	김정화	김태연	남영우	민애실	박선미	박재욱	박혜숙	서경열	손경조	신상재	안연자	오대근	유기대	윤영옥	이경재	이백훈	이순필	이은아	이치원	임익근	장형욱	정경순	정은경	조성윤	채수공	최연준	하태식	허란경	황소정
강동호	고찬규	권오태	김대영	김보경	김승렬	김유평	김정환	김태정	남성별	민윤정	박산연	박재원	박화숙	서고은	손규채	신신혜	안영복	오대섭	유기완	윤미숙	이경표	이범진	이순해	이은영	이태규	임이순	장호식	정경인	정이영	조성혜	채수연	최영	하혜숙	허민인	황순래
강명심	고현근	권장용	김대혁	김보균	김승미	김유혜	김정훈	김태현	남선수	민인기	박산하	박재환	박효선	서공주	손규주	신선희	안영수	오도영	유대형	윤미열	이경환	이병수	이순희	이은정	이태기	임장선	장호연	정광숙	정인균	조성호	채영일	최영경	한강희	허병학	황승계
강명화	고환선	권정해	김덕경	김보기	김승식	김유희	김정희	김태훈	남성호	민재홍	박석래	박정기	박희원	서귀태	손동진	신성열	안영숙	오무석	유도연	윤미자	이경희	이병욱	이승로	이은주	이태희	임정수	장홍선	정광식	정인섭	조성화	채영연	최영관	한경호	허서윤	황승호
강미경	공재현	권중학	김덕연	김보미	김순아	김은경	김정남	김필남	남수미	민혜경	박석진	박정관	박희선	서귀태	손동진	신순선	안예희	오무석	유도연	윤민철	이계화	이병원	이승민	이은지	이태희	임정애	장희선	정규범	정재필	조승근	채준근	최영관	한경호	허서윤	황승호
강미숙	공성호	권중남	김덕옥	김보연	김승우	김윤서	김종렬	김학준	남영이	박갑순	박석철	박정민	박희정	서기정	손우정	신승혁	안은경	오미란	유동준	윤민호	이고은	이병이	이승범	이은하	이필임	임종대	전갑성	정규철	정재원	조순례	천경희	최영미	한경자	허숙	황은선
강미옥	공은미	권진희	김덕현	김보영	김승학	김윤자	김종만	김한선	남유희	박갑철	박석환	박정선	방석진	서기철	손윤영	신승환	안은미	오미숙	유래경	윤보배	이광자	이병임	이승애	이은혜	이한결	임종숙	전경숙	정기주	정재훈	조순자	천미순	최영은	한권우	허신	황은숙
강민지	공정숙	권찬도	김도연	김보희	김승현	김윤정	김종범	김해석	남이문	박진희	박세은	박정수	방소옥	서나리	손정희	신양자	안은숙	오미정	유미경	윤분숙	이광재	이병철	이승우	이은희	이한범	임종화	전경우	정남희	정정순	조순희	천병환	최영준	한동수	허예찬	황은영
강봉석	공지현	권태경	김동관	김보배	김시연	김윤하	김종숙	김향옥	남지희	박결수	박세호	박정숙	방민란	서명희	손종현	신영자	안재석	유사모	윤상섭	이규주	이보희	이승은	이은진	이태희	이혜경	임창희	전나현	정다나엘	정정자	조용도	천승환	최용배	한두지	허정	황의성
강삼수	공진택	권혁상	김동구	김봉하	김시은	김윤희	김종순	김향숙	남지은	박경미	박세연	박정순	방민란	서명희	손종현	신영자	안재석	유사모	윤상섭	이규주	이보희	이승은	이은진	이태희	이혜경	임창희	전나현	정다나엘	정정자	조용도	천승환	최용배	한두지	허정	황의성
강서현	공현옥	권희숙	김동식	김봉하	김시은	김윤희	김종순	김향숙	남지은	박경미	박세연	박정순	방민란	서명희	손종현	신영자	안재석	유사모	윤상섭	이규주	이보희	이승은	이은진	이태희	이혜경	임창희	전나현	정다나엘	정정자	조용도	천승환	최용배	한두지	허정	황의성
강석수	공훈택	권효영	김동선	김부덕	김신중	김은란	김종원	김현경	노강경	박경일	박소진	박정옥	방창용	서미선	손현자	신원교	안대주	오소연	유선주	윤상희	이근우	이봉민	이승철	이일수	이향숙	임현만	전남중	정덕천	정종현	조윤희	천주희	최윤	한명주	허정아	황적성
강선중	곽경자	권희지	김동순	김삼숙	김일년	김은미	김종은	김현수	노경선	박경진	박소민	박정일	배경미	서상진	손현정	신원순	안현미	오수경	유선희	윤석철	이근태	이상건	이승호	이장규	이향희	임현숙	전동규	정도원	정종혁	조은희	천혜영	최유정	한무근	허정훈	황정연
강성남	곽경희	금기숙	김동연	김삼순	김애숙	김은배	김종태	김현숙	노경희	박경택	박소빈	박정자	배경숙	서성명	송경진	신은영	안현정	오수현	유성규	윤선옥	이금림	이상규	이승훈	이재관	이현미	임현실	전만근	정도현	정지우	조인스	최강남	최은제	한미경	허지원	황정현
강성수	곽동라	김상성	김동현	김삼용	김애자	김은수	김종환	김현영	노기철	박경훈	박수진	박정현	배경조	서성호	송기홍	신인숙	안호진	오순정	유수훈	윤성	이금영	이상부	이시백	이재균	이현숙	임혜진	전말소	정동원	정지하	조인제	최귀리	최은진	한미미	허진	황주용
강세현	곽미라	김영서	김동성	김삼희	김여진	김은숙	김종희	김현애	노기철	박규애	박수미	박정현	배경조	서성호	송기홍	신인숙	안호진	오순정	유수훈	윤성미	이기열	이상숙	이시연	이재남	이현숙	임혜진	전무연	정동원	정진태	조임숙	최경숙	최윤철	한미진	허진균	황지양
강서영	곽민화	김가영	김명수	김상희	김여진	김은식	김종희	김현자	노상영	박근희	박수희	박정혜	배덕호	서소피아	송다영	신재욱	안희선	오영미	유수자	윤성영	이기중	이상순	이시은	이재순	이현우	임호빈	전미경	정득성	정찬혁	조재희	최경아	최은정	한미연	허진숙	황진영
강수성	곽선아	김경란	김명숙	김석	김연동	김은옥	김주연	김현정	노소정	박근희	박수덕	박정화	배동화	서승현	송명숙	신진만	안희영	오영아	유승현	윤성원	이기창	이상식	이시나	이재준	이현정	장기은	전미옥	정명규	정창우	조정남	최경열	최인숙	한미옥	허춘	황찬우
강순희	곽선희	김경만	김명순	김석근	김연애	김은정	김주영	김현희	노숙희	박기덕	박순애	박정희	배명숙	서연서	송미경	신정연	안희자	오영옥	유승희	윤성정	이기태	이상업	이아람	이정길	이현진	장경자	전미정	정명란	정정훈	조정민	최경현	최일	한미자	허택	황철진
강순희	곽선희	김경배	김명애	김석주	김연수	김은주	김주자	김형규	노승관	박기동	박순옥	박재원	배영탁	서연수	송미화	신정은	양동숙	오영희	유영숙	윤성진	이길노	이상열	이애경	이정미	이현하	장경화	전미진	정명선	정준자	조정아	최계숙	최일소	한미희	허형	황춘선
강승연	곽애담	김경선	김명연	김선경	김연수	김은형	김주은	김현희	노윤경	박기배	박순옥	박재원	배영탁	서연수	송미화	신정은	양동숙	오영희	유영숙	윤성희	이길노	이상열	이애경	이정배	이현하	장경화	전미진	정명옥	정준홍	조정여	최광범	최재희	한미희	허형	황판소
강승현	곽은총	김경성	김명자	김선남	김연아	김은희	김주석	김형기	노윤길	박기순	박순자	박종숙	배영정	서영석	송민지	신지영	양병철	오은숙	유영란	윤수미	이나영	이상우	이양근	이정숙	이현하	장기홍	전병민	정명화	정준희	조정희	최광용	최재희	한병기	현우수	황현수
강신자	곽정원	김경숙	김명진	김선영	김연옥	김의경	김주식	김형량	노윤호	박기영	박순화	박종숙	배재영	서영선	송민혁	신지훈	양서윤	오익성	유영승	윤수환	이남규	이상진	이양미	이정순	이혜근	장기덕	전병호	정명훈	정필선	조지환	최광호	최정민	한복희	현인택	황현숙
강양임	곽지현	김경순	김명철	김선옥	김연자	김이한	김주자	김형백	노현주	박기욱	박시영	박종순	배재정	서은제	송방호	신진옥	양선희	오재석	유영준	윤숙희	이남숙	이상화	이연	이정애	이혜민	장덕근	전순희	정미영	정필순	조춘분	최광희	최정호	한봉수	현지영	황해정
강영숙	곽광모	김경옥	김명환	김선자	김연주	김이화	김준태	김형수	노형숙	박기환	박시형	박종열	배주은	서은자	송성민	신지상	양철훈	오정숙	유영희	윤애중	이단양	이상희	이연옥	이정연	이혜영	장동열	전수선	정미자	정해복	조현일	최규람	최정훈	한상영	혜진스님	황홍성
강영순	곽덕희	김경우	김명철	김선형	김영경	김연숙	김준혁	김형수	노경경	박남순	박시호	박종옥	배지은	서은진	송세현	신현우	양성실	오정아	유예린	윤양중	이단양	이서현	이영구	이정옥	이호성	장두선	전수	정민구	정해순	조형찬	최근경	최정희	한상원	홍근미	황희경
강영우	곽미경	김경우	김명석	김선혜	김연옥	김은희	김주석	김형기	노윤길	박기순	박순자	박종숙	배영정	서영석	송민지	신지영	양병철	오은숙	유영란	윤수미	이나영	이상우	이양근	이정숙	이현하	장기홍	전병민	정명화	정준희	조정희	최광용	최재희	한병기	현우수	황현수
강영진	곽미숙	김경자	김문자	김선희	김영란	김인중	김지선	김혜덕	도원남	박다희	박신상	박종훈	배진숙	서정수	송승훈	신현창	양수	오주연	유은주	윤영정	이대의	이석영	이영미	이정문	이화숙	장무순	전수옥	정민수	정현순	조홍금	최기용	최종길	한상혁	홍경숙	대아전기
강인성	곽분석	김경주	김문준	김성도	김영률	김인철	김지숙	김혜란	도재은	박덕수	박신애	박종희	배현숙	서주원	송이영	신현화	양소옥	오진숙	유은희	윤영미	이대훈	이석원	이영선	이정원	이화연	장문희	전순철	정병모	정현주	조화수	최다혜	최종호	한세훈	홍경옥	미래CCL
강재희	곽재하	김경태	김문진	김성미	김영복	김인호	김지애	김혜림	도재일	박덕조	박애경	박주선	백가나	서준	송영숙	신홍식	양소철	오춘철	유이수	윤영현	이도연	이석한	이영숙	이정은	이화영	장미옥	전스지	정보경	정혜영	조희숙	최대성	최종식	한송이	홍광훈	바람부는날
강정아	곽순인	김경희	김문환	김성민	김영선	김일영	김지연	김혜선	도한국	박두준	박애은	박주하	백경태	서철규	송영진	신희철	양은선	오해준	유재원	윤영혜	이동렬	이선순	이영아	이정화	이화용	장미현	전연업	정복수	정혜자	조희호	최동인	최지안	한수정	홍금연	봉하일염씨
강정희	곽수현	김경화	김문희	김성배	김영숙	김일용	김지연	김혜숙	도한국	박명남	박양진	박주하	백경태	서철규	송영진	신희철	양은선	오해준	유재원	윤영혜	이동렬	이선순	이영아	이정화	이화용	장미현	전연업	정복수	정혜자	조희호	최동인	최지안	한수정	홍금연	봉하일염씨
강정희	곽수희	김관태	김미경	김성수	김영순	김재덕	김지현	김																											

시니어케어매니저  
이우선 1기 회장

노인 낙상사고 예방 전문 사회적기업  
(주)해피에이징 권경혁 대표



업사이클 전문 사회적기업  
터치포켓 박미현 대표

대학생 취업 멘토링  
박경훈 참가자



오늘보다 설레는 내일

# 고맙습니다

함께 일하는 재단

모두에게 필요한 일자리 지원으로 함께 일하는 재단이  
내일의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